

## '싸움닭' 조계현, KIA타이거즈 단장 됐다…파격인사

등록 2017.12.06 14:11:41



선수 출신 7번째 단장

【서울=뉴스시스】 오종택 기자 = KIA 타이거즈의 조계현(53) 수석코치가 선수출신 단장 행렬에 가세했다. KIA는 6일 2017시즌 통합 우승에 일조한 조계현 수석코치를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.

허영택 전 단장이 구단 사장으로 승진 발령되면서 공석인 단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.

선수 출신인 조 단장 임명으로 10개 구단 중 선수 출신 단장은 두산(김태룡), NC(유영준), SK(염경엽), LG(양상문), 넥센(고형욱), 한화(박종훈)까지 모두 7명이 됐다.

조 단장은 군산상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1989년 KIA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로 데뷔했다. 해태(1989~1997년), 삼성(1998~1999년), 두산(2000~2001년) 등을 거치며 13년 동안 선수로 활약했다. 통산 320경기에 출전해 126승 92패 17세이브 평균자책점 3.17이라는 화려한 성적을 남겼다.

은퇴 후 지도자로 경험을 쌓은 조 단장은 올 시즌 수석코치로 김기태 감독을 보좌하며 KIA 타이거즈의 통산 11번째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.

KIA는 "야구인 출신 단장 선임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인사"라며 "풍부한 지도자 경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팀을 운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"고 전했다.

ohjt@newsis.com